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의 너그러움 [마태복음 20:1-16]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2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 또 제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놓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5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하고 6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놓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이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8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9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 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19 이 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천국은 마치....' 우리가 흔히 예시를 들을 사용하는 후렴구입니다. 오늘 설교본문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짧은 유대인 이야기길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 시내 장터로 나아갔습니다. 하루 일당은 대략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일은 보통 10-11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해가 떠서 지기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일과를 마칠 때쯤 모든 일꾼들은 일당을 받았습니니다. 그것도 동일한 양의 일당을 말이죠. 이것은 공평한 것 일까요? 이것은 피고용인이나 사업관리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30). 오늘 예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마태복음 20:1).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협상하고 그의 감독자에게 일꾼들에게 줄 임금을 넘겨주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예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꾼들은 날이 저물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보수를 받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성경적이고 신실하며 의롭고 믿을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로 와 일한 사람들은 약속한 보수를 받았습니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너그러운 행동으로 인해 비난 받았습니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15). 하나님을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원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세상원리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왕국의 일터에선 일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동일한 보수지금이 보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아십니다. 그 분은 언제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공헌한 것에 대해 너무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관해, 우리가 번 것 또는 일한 것을 받는

것, 관리들, 공정. 우리가 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은혜를 보는 시각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일하고, 벌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며 그 분의 넉넉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공정, 공로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 잠시 덮어두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를 동일하게 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6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므로 받은 모든 풍성한 축복에 너무 익숙해져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잊는 일들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왕국에 안주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여전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깔끔하게 배분된 양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정도에 따라 우리의 삶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소중합니다. 상급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동일하게 영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총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요한복음 1:16). 개인적인 자랑,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멸이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관한 의문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천국의 나라의 선함이 승리합니다. 이 선함이란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이고, 옳은 것과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나중된 것과 처음된 것은 순위에 관한 것이 아닌 동일한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제자들, 어부들,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은 모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에 환영받았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노력에 비례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과 희생을 초월해 주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너그러우십니다.